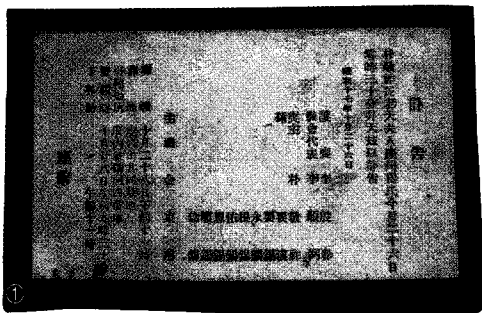


## 세월의 변화와 함께하는 출산문화

# “내 아(兒)를 나아도”

최근 인터넷에서 “외국인이 본 한국인”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 와 있었다.

-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국가부채, 각종 악덕타이틀에는 3위권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종족
- IMF경제위기를 맞고도 채 2년 남짓한 사이에 위기를 벗어나 버리는 유일한 종족
- 자국축구리그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축구장은 썰렁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종족
-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해치워 버리는 미스터리 종족
-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 비아냥 받던 유대인족을 하루아침에 게임은행가로 내몰아 버리는 엄청난 생활패턴의 종족
- 매일 아침 7:40분까지 등교해서 밤10,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틴 미스터리 종족 한국
-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입는 대자연과 대결하는 엄청난 종족
- 세계 인터넷 접속1위를 차지하는 할 일 없는 종족
- 세계1위의 제왕절개 종족...



이러한 미스테리한 종족은 “아 만들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세제 몇재가는 입양아 수출국”

최근 한국여성의 출산율이 1.17명밖에 되지 않아 출산장려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40년전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961년 창립)가 활동하기이전 한국여성은 한마디로 애 낳는 기계였다.

나의 가계를 보더라도 나의 외증조모 오귀선(1893년생)은 1913년 나의 외할아버지 장남 박요한을 시작으로 1933막내를 출산 할 때까지 20년동안 12명을 낳았고 나의 외조모인 장미옥(1912년생)은 1932년 나의 어머니 박성희를 시작으로 1950년 막내 “말생이 외삼촌”까지 18년동안 9자녀를 두었고 어머니 박성희는 1950년 큰형을 시작으로 63년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기까지 13년 동안 6남매를 두었다.

그런데 내 형제 중 막내가 태어나기 이전 집안여성의 출산 터울이 대체적으로 2년 미만이었지만 63년 태어난 막내 여동생 “석란”이는 4년 터울이 난다. 아마 당시“가족계획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영향으로 이 시기에 어머니도 다른 한국여성과 같이 과학적인 피임을 실행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내 대에 와서, “아 만들기”는 한술 더 나타났다.

62년생인 내 집사람은 88,89년 연거푸 두 딸을 나아 버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부는 유전적인 조선인의 “아 만들기”공포로 밤이면 종종 이러한 실갱이를 한다.

“주희 아빠! 오늘 안하면 안돼?”

“오늘은 또 무슨 이유고?”

- ① 1942년 외교조모 장례 부고엽서(당시 외할아버지 남형제 8명의 이름이 나와있다).
- ② 1964년 주임식 피임약 B.C. Jerry.
- ③ 1966년 가족계획 Poster.
- ④ B.C Jerry설명서(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했던 약품).

